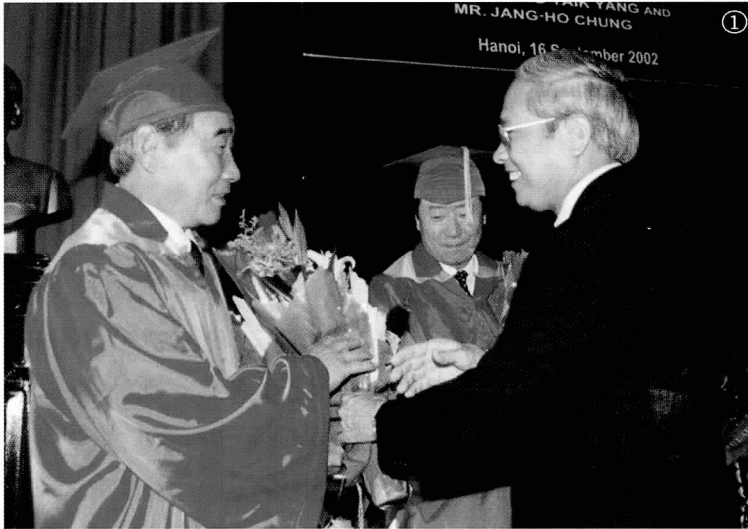




정장호 회장, 베트남에서 명예박사 받아



① 전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을 만들어가는 베트남 국민들의 성실성이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이 자리는 베트남과 세계의 정보통신 발전에 우리가 함께 이룬 공헌의 결실”이라고 명예박사 수락사를 했다.

외국인에게 명예박사의 수여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최초이며, 이에

본 협회 정장호 회장이 지난 16일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명예박사를 받았다.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베트남 진출에 꾸준히 노력해 온 정장호 회장은 지난 89년 TDX시스템의 전자교환기를 수출하기 위해 베트남에 첫발을 내딛은 후 지난해 정식으로 CDMA방식의 한국형 이동통신사업을 베트남에 도입하기까지 양국 정보통신 협력에 큰 공을 세웠다. 특히 90년 수출한 교환장비는 베트남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의미있는 일이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한국의 선진 정보통신 기술을 보급한 공로가 인정돼 이날 베트남정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대학 추천으로 명예박사를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정장호 회장은 “베트남의 발

따라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 후 수상의 승인을 얻어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89년 베트남을 처음 방문한 후 베트남 통신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온 정장호 회장은 지난 95년에도 베트남 정부로부터 베트남 통신 공로 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①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정장호 회장

② 수락사에서는 전 베트남 우전부 장관인 당반 탄 박사의 시도 낭독되었다.



③ 이날 수여식에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명예박사를 수여받았다.

터키 CeBit Bilisim Eurasia 2002 참가



본 협회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터키 이스탄불(Tuyap Exhibition and Congress Center)에서 열린 '터키 CeBit Bilisim Eurasia 2002'에 참가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유라시아 지역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로, Ericsson, Intel, Nokia, Siemens, Oracle, Motorola, Sony, Microsoft 등 세계 주요 IT 기업 총 86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바이어 및 일반 관람객을 포함한 총 62,315명이 전시회를 참관했다.

본 협회에서는 국제정보통신 전시회에 중소정보통신기업체의 참가기회 부여로 해외진출 기반 조성, 수출계약체결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번 터키 전시회에 (주)이노텔리틱 등 9개 업체와 함께 한국관으로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관에는 약 2,500여명의 전문 바이어의 방문과 536여건의 세부상담이 실시되었으며, 총 상담규모 약 550만불, 총 계약규모 36만불의 성과를 거두었다.

2차년도 업종별 ASP보급 확산사업 31개사업자 선정

협회 ASP사업팀은 '업종별 ASP(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 보급 확산사업'의 참여 사업자(컨소시엄)로 아이콜스 등 31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업종별 ASP 보급 확산사업'은 전통산업의 정보화 촉진과 업종별 e비즈니스모델 확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31개 사업자가 2차년도 사업기간(2002년 9월 12월) 고객기업을 발굴해 ASP를 제공하면 교육 컨설팅 비용 중 일부(1개 고객기업 당 최대 5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31개 사업자의 서비스 대상은 의료·건설·금속기물·주물·철강·물류유통·주류유통·쇼핑몰·금융업·무역업·여행업·의류패션·자동차부품·제조일반·제조유통·외식업 등이다.

또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 솔루션으로는 병의원솔루션, 전자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공급망관리(SCM), 경영정보시스템(MIS), e러닝, 그룹웨어, 결제, 사무자동화, 쇠석생산량시물레이션, 판매재고관리/차량위치추적 서비스, 콜센터, 지식관리시스템, 유통영업관리 솔루션,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급식운영시스템, 콘텐츠제작솔루션 등 다양하다.

이와 함께 이번 2차년도 사업기간 정부는 기업들에 ASP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은 물론 기업에서 실제로 ASP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ASP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유저기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 및 성공사례 발표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정보보호마크' 한-일 상호인정 협약



협회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재단인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와 '한 일 개인정보보호마크 상호인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키로 최종 합의하고, 정보통신부와 일본경제산업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협회가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마크)'의 국제 신인도 제고와 국내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일본 가고시마에서 한 일간마크 상호인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데 이어 수차례의 실무자 회의와 온라인 협의를 거쳐 최근 협약사항을 최종 합의하게 됐다.

이번 마크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앞으로 양국에서 '상호인정 개인정보보호마크'를 획득한 기업 및 사이트는 한국의 'ePRIVACY마크 심사기

준'과 일본의 '프라이버시마크 심사기준'을 모두 통과, 한국의 인터넷이용자가 일본 사이트의 전자상거래(EC) 및 콘텐츠 등을 이용할 때 한 일 상호인정마크를 부여받은 사이트를 선택해 이용할 경우 보다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 인터넷사업자는 일본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해 일본산업규격 JIS Q 15001 취득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CP)'을 국내에서 상호인정 마크를 취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돼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JIPDEC)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된 개인정보보호 상호인정마크를 양국의 인터넷 관련기업 및 사이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일정 심사를 거쳐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기업(사이트)의 경우 관련홈페이지(www.privacymark.or.kr 또는 www.trustmark.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